

小説에 있어서의 社會와 個人

—近刊 長篇小説들을 읽고—

李 善 榮

Ⅰ 근래 외형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한국소설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작가·비평가·독자 사이에 교환된 그 논의들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눈여겨볼 만한 주장들은 그다지 많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가운데서 비평가들에 의하여 개진된 다음 두 주장들은 그 자체의 일정한 논리성과 서로의 대조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주장들은 최근 한국 소설들에 대한 그들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점에서 같은 유형에 속한다.

그 두 주장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 소설의 통속화 경향을 지적하고 그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주제 면보다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기법 면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 비평가는 한국 작가에게 사실주의적 소설보다 기교적으로 새로운 소설을, 현실사회보다 초현실적인 세계를 택하도록 권하고 있다.¹⁾ 그러나 또 다른 비평가는 오늘의 인기작가들이 사회에 대한 철저한 의식 없이 개인적 재능으로 상업주의에 동조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제 문학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도덕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전제 아래 그는 현실의 농촌과 도시를 심각한 사회적·문학적 문제의 차원에서 정당하게 관찰·추구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중심으로 1970년대 한국 소설들을 논하고 있다.²⁾ 다시 말하면 전자는 방법이나 기교 혹은 상상력을 중요시한 반면 후자는 소재나 주제, 그 가운데서도 사회의식이나 인간적 양심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견해차이는 각자의 세계관의 문제와도 긴밀히 관계되기 때문에 선별리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세계관도 인간의 삶에 있어 타당함과 부당함, 깊음과 열음이 있음을 볼 때 인간의 삶을 토대로 하는 문학의 경우라고 그것이 예외일 수는 없는 이치라 하겠다. 그리고 앞에 든 두 문학적 견해들도 이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요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주제보다 방법의 성찰이 통속화되어가는 우리 문학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부터 고찰해 보자. 그런데 이 주장은 상당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음을 우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발표된 많은 작품들이 현실의 생경한 단면을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든가 비속한 일상적 소재와 부분적인 현실의 단면을 마치 삶의 총화인 양 과장하고 있다는 그 논자의 지적은 사실과 상당히 부합되고 있다. 사실상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의 작품들이 현상의 표피나 물리적 사물을 복사할 뿐 그 이면이나 심층의 진실을 바로 관찰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방법의 강조는 정당하고 중요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논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소수의 우수한 한국의 사회소설들을 무시하고 현실보다 비현실의 상상세계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소설이 사회현실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사실적 표현구조를 갖는 것도 달갑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입장의 비사실적 작가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현실을 상상적으로 해체할 줄은 알겠지만 현실의 역사적 성격이나 전반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추구하기를 그런 작가에게 바라기는 어려운 것이다. 예술적 상상도 그것이 현실의 표피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현실의 음폐된 심층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유리된 것이라면 실로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상상적 예술은 현실을 기피의 대상으로 봄에 따라 인간다움에서 멀어지는 소외의 체험에 기여하게 될 따름인 것이다. 상상을 위한 상상이나 현실과 단절된 상상이 부정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실세계를 그렸느냐 상상세계를 그렸느냐는 것보다 그 속에 참으로 가치있는 현실의 문제와 삶의 의미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학이 재능이나 기법보다 소재 내지 주제를 중시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사회현실을 인간적·도덕적 측면에서 정당하게 관찰·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진술도 고찰을 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서 얼마나 재능있는 작가나 혹은 얼마나 재주있게 써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능을 누구의 편에 서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문제로 되었다. 물론 그것은 문학에서 재능이라 불려질 요인들을 제외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늘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힘으로 작용해야겠다는 뜻이다.³⁾

그런데 이런 견해나 주장은 문학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그 대신 기법적 수사적 분야를 경시·배제한다는 이유로 가끔 반대론자의 비난을 받는다. 실상 이런 견해는 재주나 수사에 대한 관심보다 무엇을 쓸 것이냐는 학미론적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앞에 든 평론 역시 대상 작품의 선점과 평가에 있어 수사나 기법(내지 재주)의 면에 대해서는 다소 가볍게 본 듯한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존재 방식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추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리얼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색이기도 한 그 <진지한 추구>는, 바꿔 말해서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깊고 바른 이해는 소설이라는 형식을 원숙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 말은 소설에서 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묘사 역시 소설의 성숙에 기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다만 『개개 인간들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의 전체적 생활양식의 가치를 창조하고 판단하는 그러한』⁴⁾ 차원에서 소설은 더욱 원숙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글은 대중 이상과 같은 생각을 전제하여 최근에 간행된 장편소설들을 일별하려고 한다.

②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검토하려는 장편소설들

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연희(朴淵禧)의 『하촌일가(一家)』(대운당), 이호철(李浩哲)의 『그 겨울의 긴 계곡(溪谷)』(현암사), 신상웅(辛相雄)의 『배회(徘徊)』(태양문화사), 이태원(李台元)의 『객사(客舍)』(한길사), 박영한(朴榮漢)의 『머나먼 풍바강(江)』(민음사) 등에서 그런 관계의 여러 구조를 만나게 된다. 식민지 사회에 있어서의 독립운동과 한 가족의 몰락과정을 그린 『하촌일가』, 일제가 식민지 한국에서 향교를 밀어내고 신사를 세우려는 책동에 대해서 한 가족이 벌이는 줄기찬 투쟁과 그와 연관된 그 가족의 참혹한 운명을 다룬 『객사』, 분단시대의 경적된 상황에서 불안에 시달리는 실향민의 처지를 밝힌 『그 겨울의 긴 계곡』, 자유당 시절부터의 부정한 상황과 타락한 사회 속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비틀거림을 그린 『배회』, 그리고 월남전 때의 한국군의 체험을 중심으로 그 싸움의 비리와 인간가치의 소멸을 추구한 『머나먼 풍바강』에서 각각 개인과 사회의 의미와 그 상호관계가 어떻게 해명되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개개인들간의 생활과 감수성과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생활양식 즉 각 시대의 특이한 사회상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 작품들은 공통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개인들, 어떤 단위체들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묘사에만 집착하는 개인소설도, 어느 전체생활, 어느 집합체에 관한 정확한 관찰과 묘사에만 집착하는 사회소설도 아니다. 개인과 사회를 서로 의존하고 작용하는 관계로 다룬 소설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한결같이 이 소설들이 개인과 사회의 관찰과 묘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그들의 융합이 성공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것들 가운데는 개인이 사회의 한 국면이 되려고 하는 경우와 사회가 개인의 한 국면이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음을 밝혀 둔다. 또 이 작품들은 모두 인간의 생활양식처럼 개인도 사회도 아닌 하나의 분해할 수 없는 통일적인 과정으로 형상화되어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편의 장편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인간적·문학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그 성찰은 주로 이 작품들의, 집단체와 단위체의 관계에 대한 진술을 고찰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집단체와 단위체, 즉 사회와 개인의 관계는 이상에서처럼 작품 안에서의 사회와 그 속의 인물들과의 관계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 관계는 창작의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집단과 작가의 관계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학이나 예술의 논의에서는 문화적 창조의 참다운 주체는 사회적 집단이라고 보는 경우와 단독의 개인이라고 보는 경우로 맞서기도 한다.

그래서 후자에 속하는 심리학적 비평가는 개인으로서의 예술가가 겪은 특수한 체험과 그 자신의 창작과의 관계를 밝혀보려고 한다. 그 한 예로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한 연구」(*Leonardo da Vinci: A Psychosexual Study of Infantile Reminiscence*)에서 독수리를 만난 레오나르도의 유년기 기억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후일의 성적·예술적 억압을 이해할 목적으로 이 예술가의 전기와 정신발달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⁵⁾ 그러나 이런 방법은 문학연구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유효한 것이냐는 점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거니와 더구나 여기서 고찰하려는, 사회와 작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여기서 고려해 볼 만한 견해로서는 오히려 문학의 사회학적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방법에 의한 소설의 대표적인 연구가의 한 사람인 골드만(Lucien Goldmann)은 『문학적 창조의 참다운 주체는 실로 사회적 집단이며 단독의 개인이 아니다』⁶⁾ 라고 한다. 그는 또 작품의 창조가 개인적 창조자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집단의 수준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과, 『그 집단 속에 참다운 창조의 주체를 보는 전망만이 작가의 역할』⁷⁾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작가는 사회적 집단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을 생각하며 느끼고, 『역사적 혹은 초월적·초개인적 차원에 그 자신을 두는 한에서만 진정해질 수 있다』⁸⁾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개인을 집단 속에 매몰시킴으로써 인해서 개인의 존재를 소멸시킨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비난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설에서 개인의 삶이 사회의 일국면으로 배버리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작가와 사회적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 개인으로서의 작가가 사회의 일국면으로 귀착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적 집단이 개인으로서의 작가의 일국면으로 귀착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가가 개인적 삶을 지나치게 강조·집착할 때 울프(Virginia Woolf)의 『파도』와 같이 결국 대다수의 개인들을 부인하는 개인소설을 낳게 되며, 또 그와 반대로 작가가 사회적 집단에만 집착할 때 도식적인 사회소설을 낳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의 작가와 사회적 집단과의 관계 역시 서로 의존·작용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또 그럼으로써 해서 소설은 우리가 바라는 바 개성적이고 전형적인 수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박연희(朴淵禧)는 『하춘일가』에서 자신이 다루는 인물들과 사회와

의 관계에 대해서 대충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여준다. 그것은 식민지 한국사회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로 특징지어지고 인물들의 성격 역시 이런 사회와의 대응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일제 지배시대, 그 중에도 이 소설의 시대는 1920년대 말엽으로 그들의 식민지정책이 바야흐로 본격적인 터전을 구축하던 시기이다. 말하자면 이 시기의 한반도는 일본의 중국침략에 필요한 병참기지로써 여러 가지 시설과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철도·항구도시·수력발전소·비료공장 등이 신설되었고, 일제의 정치적 탄압이 가열되는 동시에 경제적 약탈 또한 극도에 달했던 것이다. 한국의 친일지주들은 일본 관헌과 결탁하여 소작인들의 쟁의에 압력을 가하고 농민조합의 분열·해산을 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적 특징을 지닌 식민지 사회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떳떳하게 사는 방법이란 오직 이민족의 압제와 약탈에 맞서 싸우는 길뿐이라는 것이 작자 박연희의 생각이다. 그리고 약탈·착취에 저항한 효과적인 투쟁은 당시 사회운동가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 사회에서는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은 한 낱대의 두 바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작자가 『하춘일가』의 주요 인물들의 설정을 압제와 착취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전파, 이에 반대하는 일제의 앞잡이 및 친일지주의 편으로 나누어 놓은 것도 그와 같은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격인 박규수를 비롯하여 지학준·채용준·이길환·한석민·박상도 등이 민족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이고, 또 동주·세훈·규원·규진과 같이 이들의 사상과 정신을 배우고 따르는 10대의 학생들이 있다. 규수는 그 시대 민족의 핵심적 과제인 국권회복을 위해 몸 전체로 싸우다 끝내 굽힘없이 후회없이 죽어간 사람이다. 일찌기 사회운동에 가담하여 옥살이를 경험한 바도 있는 그는 고향을 떠나 해삼위에서 10년간이나 민족운동을 해왔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죽인 가와하라(조선인) 대위와 일본군의 정탐군 장은상을 살해했으며, 조국에 돌아와서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었다. 모진 고문과 문초를 받으면서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드디어 회복할 수 없는 중환자로 보석이 되지만 오래지 않아 운명하였다. 그는 운명하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젊은 학생들에게 『일본놈을 몰아내고 가난과 착취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유언으로 남긴 바 있다.

그밖에도 Y교보의 교사인 지학준과 변호사인 채용준은 규수와 비슷한 사상을 지닌 지식인이다. 기독교를 믿고 일본의 식민지 수탈과 자본주의

의 특점적 경제구조의 모순을 간파하는 지선생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자유사상과 경제학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배일사함을 붙여넣었으며, 또 이로 인해 경찰에 구속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독립투사와 사상범을 무료로 변호하고 죄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채 변호사는 이 나라의 양심적인 지식인을 대표한다. 그런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학생 소요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아들과 조카딸을 구제하기 위해서 김유하와 같은 친일 유력자를 만나 그들의 선처를 부탁함에 있어 심한 고민과 수치감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인물형의 반대편에는 가와하라와 장은상이 있음은 이미 보았거니와, 그 계열에는 또 친일지주인 이참봉, 그의 마름인 김초시와 또 김초시의 아들이자 일경의 앞잡이인 인철이, 그리고 친일재벌이면서 도회의원인 김유하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규전(규수의 동생)과 같은 소작인들을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착취하고 혹은 탄압하였다.

요컨대 『하촌일가』는 이조시대를 지극히 그리워하던 박승지가 임종시에 사회주의운동에 공명하는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부자연스러운 도식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식민지 사회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설정과 상술한 바와 같은 양쪽 인물들의 갈등 묘사, 그리고 개성적인 여러 성격 창조에서 주목할 성과를 보여준다.

④ 이태원(李台元)의 『객사(客舍)』는 식민지 사회에 있어서의 피지배자의 참다운 삶이란 개인적 차원의 삶과 민족적 차원의 삶이 하나가 된 것임을 입증해 준다. 개인이나 가족의 일원으로 몇몇이 사는 일과 민족의 일원으로 몇몇이 사는 일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작품은 사람이 개인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집단의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가치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기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객사』는 『대체로 개인을 초월하고자 하는 소망과, 개인을 초월한 질적 가치에 대한 추구가 있는 데서만 확실한 문학적·예술적 창조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⁹⁾는 골드만의 말을 연상케 한다. 이처럼 사람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 작자의 주장은 주로 사회적 신분문제와 민족적 전통문제의 두 면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신분문제는 주인과 하인이 부부의 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생기고, 전통문제는 일제가 향교를 밀어내고 실사를 세우려고 한 데서 야기된 것이다.

먼저 신분문제를 중심으로 김벽순·송판돌과 같은 주요인물들이 개인의 수준을 초월하고자 노력하는 면을 보기로 하자. 세 자녀를 낳고 과부가 된, 양반집 출신의 벽순이 자기집 종이었던 판돌과 자칭하여 부부가 된 사이다. 그러나 판돌은 늘 마음이 편치 않다. 주위의 압력도 압력이지만 스스로의 마음에도 지금의 자기들 부부 사이가 가당치 않다. 그래서 판돌은 벽순에게 『천하고 못한 종놈이 우째 마님의 지아비 노릇을 하고 아가씨 도련님의 애비 노릇을 더 하겠십니까』라고 한다. 그러나 벽순은 『양반이 입을 살찌게 하지 않는다. 양반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양반이 사람을 깨우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판돌에게 『영감, 나는 양반집에서 났고 거게서 물을 마시면서 어린이 뻘어도 영감하고 살민서는 눈꼽만치도 불만을 안 가지고 있었구마. 땀땀하드구마. (……)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식들이 혼란에 안 빠지도록 잘 타일러 갈침시더』라고 타이른다. 그리고 벽순은 판돌이 죽고 나서도 그의 자식들과 제 자식들 여섯을 꼭같이 돌보고 가르친다. 그래서 벽순이 마지막 쓰러지면서도 여섯 남매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며 죽어간 것이다. 벽순이 자기를 회생시킨——개인의 수준을 초월한——이유의 하나가 반상계급의 타파에 있지만, 판돌의 회생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그는 사위인 안목수의 죄를 뒤집어쓰고 경찰의 모진 문초를 받았으며, 더구나 벽순의 딸 인달을 보호하기 위해 빈사지경이 되어 풀려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귀엽고 고마운 것만큼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자살한 것이다.

다음은 이 작품의 중심 테마인 민족의 문화적 전통 보존문제, 즉 일제의 향교유린과 신사건립에 대한 일련의 반항에서도 개인을 초월하려고 한 의욕을 볼 수 있다. 특히 벽순과 그녀의 딸 인달은 안이한 개인적 삶을 거절하고 집단의 수준에 스스로의 삶을 끌어올림으로써 사람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벽순이 향교 교지기인 판돌과 헤어져 편안한 양반생활을 하라는 황보댁의 권고를 거절한 점에서도 그렇지만 향교와 신사에 있었던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도 개인의 안일을 초월하여 민족적 집단의 수준에 자신을 높으려고 했던 것이다. 신사사건을 극구 부인하라는, 일본 경찰들과 판료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벽순은 자기 딸(판돌의 소생) 영달이 목을 매단 곳은 향교가 아니라 신사라는 것, 영달이 모욕한 것은 우리 나라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주장했다. 그들의 매질에 벽순은 귀청이 파열되고 시력을 잃고 결국 죽어가는 몸이 되었지만 신사만 헐린다면 그것은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젊은 인달도 그 나름으로 향교와 신사 문제에 철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한두

예로 형부인 안목수가 물욕에 눈이 어두워 신사일을 도급말고 향교 숲의 나무를 도벌하려고 할 때, 그에게 신랄한 비판과 간곡한 충고를 한 것이라든가, 신사건립 후 영달의 그 값진 죽음을 안목수로 하여금 세상에 밝히 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객사』에는 40명 내외의 인물들이 여러 개성적인 삶과 특이한 등장인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말하자면 식민지시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작자의 견해가 많은 인물들의 개별적 생활양식을 통해서 훌륭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 대신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작자의 견해의 일단을 살피는 데 그쳤음을 밝혀둔다.

⑤ 앞에서 고찰한 두 작품들이 식민지시대의 문제를 취급한 것과는 달리, 『그 겨울의 긴 계곡』은 분단시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호철(李浩哲)은 이 작품에서 오늘날과 같이 남북분단으로 인한 경직된 사회 속에서는 평범한 소시민의 생활 역시 결코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자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남한에서 이북출신이 경험하는 내면적인 불안과 외부사회로부터의 위협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 그와 같은 개인의 내면적인 불안이나 공포는 실상 개인의 파오 때문이라기보다 분단시대의 왜곡된 사회현실에 주로 기인된다는 것으로 이 작자는 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불안감을 갖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새벽에 변사체로 발견됨으로 인해서였다. 전날은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북출신 4,5명 노인들이 흥분을 참지 못해 술자리를 같이했던 것이다. 그 노인의 변사 소식을 들은 동료 노인들은 처음 한동안 큰 놀라움을 느꼈지만, 곧 그 놀라움은 물러가고 일이 성가시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차차 휩싸이게 되었다. 더구나 주인공 이억구의 경우에는 과거 이북에 있을 때 리 농민위원장을 지냈고 6·25때는 면 동원책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행적이 드러날까 봐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제 양심으로는 대한민국 국시에 비추어 일말의 얼룩이 없다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평상적인 일로라도 당국으로 가서 원적, 본적, 주소, 나이 등을 대야 할 경우에는 지레 마음이 겁겹해지고, 누가 뒤에서 자기 뒤통수를 지긋이 지켜보기라도 하는 듯이 뒷등이 썰렁썰렁하곤 하였다.』 아니나다를까 억구는 파출소의 호출을 받아 변사사건의 주변조사에 응해야 했고 거기서 월남한 사람으로서 이북에 있을 때의 행적이 문제가 되었

다. 그러나 지사나 위인처럼 특출한 안목이나 지조를 지닌 인물도 아닌 일개 소시민으로서 설사 자기가 살았던 잘못된 사회에 협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이 벌받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별것 아닌 과거의 일을 당국에서 일일이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겠는가. 이 작자는 그런 경직된 사회제도의 부조리를 어느 작중인물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북에서 나온 사람치고 그런 식으로 물어서 겁안낼 사람은 없을 꺼거든. 아무 리 이북에 있을 때의 생활이 별 하자가 없이 앞뒤끝이 깨끗한 사람이라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물어오면, 이북 살 때 보고대회 같은 데 한두번 안 나갔던 사람은 없을 꺼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박수 안 쳐본 사람이 없을 테니, 그런 일까지도 와락 쪼찌감으로 느껴질 꺼란말야.

이처럼 경직된 사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 밖에도 이 작품에는 분단 시대를 사는 실항민의 회상과 향수, 고민과 체념이 전편에 깔려 있다. 넓게는 해방 전후부터 6·25 동란에 이르는 한국의 역사와, 좁게는 고향 현산리에서의 억구 자신의 경험에 관한 회고, 또 거기에 따른 감회와 실항민으로서의 향수, 그리고 오늘의 삶에 대한 반성과 친척간의 화해 등이 밀도있게 전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것은 억구와 그의 집안 조카딸 되는 두용이와의 마지막 화해의 장면이다. 그런데 이들은 해방 후 이북에서 어떤 일로 다투었다고 해서 월남하여 같은 서울에 산 지 30년이 가깝도록 서로 일체의 내왕 없이 지내온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이번 7·4 공동성명을 계기로 둘의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화해 장면에서도 끝으로 작자가 두용의 입을 빌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인가로부터 들쭉기는 데만 정신이 없지 않았』던 지난날에서 우리는 헤어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들 상호간의 불미했던 관계나 경직된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 모두 유익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⑥ 신상웅(辛相雄)은 『배회』에서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를, 사회악에 의한 인간적 삶의 파탄이라는 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그가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사회적 여건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마저 말살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여건 아래서는 오직 물질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소시민들만 양산되며, 그들의 삶은 소수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게 되고 어떤 정치적 장치에도 로보트적으로 조종당하게 될 뿐이다. 또 이런 사회에서의 역학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인 것이어서 피치 자에게 끝없는 자동인형적인 행동만이 강요되고, 따라서 이런 사회는 통치자들에게 그 이상 손쉬운 사회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사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모순과 비리의 취약점에 대한 불안 때문에 통치행위는 언제나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제동을 걸게 되고 그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마련이다. 이런 사회에서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병리에 눈 뜨는, 이른바 사회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너무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개인이 그런 사회의 개혁의지까지 간직하고 부단한 모색과 좌절의 도정을 걷는다면 그 어려움은 상상하고도 남을 만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그 개혁의지를 가진 편으로 주인공 허도일을 중심으로 김세정·황창하 등이 있고, 이해관계에 민감한 박신철·조기운·김우길 등이 있다.

허도일은 가난을 딛고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옥살이까지 했다. 어떤 회사의 외판원으로 있을 때 그 회사의 사기꾼 사장 김우길의 비행을 보고 참지 못해 고소를 한 것이 오히려 자기가 무고죄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도일은 그 옥살이에서 더욱 강한 사회의식을 갖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공장에 나가던 여동생의 부당한 해고 사실을 알고 크게 분개했다. 여동생은 색마에 수전노인 공장장 조기운에 의해 정조가 유린되고 직장까지 내쫓긴 것이다. 도일은 힘겹게 공장장한테서 얼마간의 돈을 얻어내지만 그 사이에 여동생은 가출을 하고 어머니는 그 사건의 충격으로 운명하고 말았다. 그 무렵에 김세정이 쫓기는 몸으로 도일을 찾아왔다.

도일과 전에 잠깐 연계가 있었던 세정은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노처녀이며 모종 사건의 배후인물로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 몸이다. 그런데 도일은 젊음을 참지 못해 자기 집에 임시 묵고 있는 세정을 한날 저녁 덮치고 말았다. 밝은 날 아침 도일은 자기 행위가 얼마나 파렴치한 신의의 배반이며 여자의 약점을 악용한 짓인가를 절감하고 집을 나섰다. 도일은 여동생 건으로 지면이 있는 황창하에게 세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도록 부탁했다. 그 후 도일은 생각지도 않았던 거금——옛날 조부가 사 놓았던 임야 매도계약금을 갖게 됨에 따라 정신적인 풍화상태에 놓이고, 또 이로 인해 일본으로 밀항을 하지만 그것 또한 선원의 숙입수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밖에도 그때그때의 현실과 체제에 민첩하게 영합하여 마침내 외국 주재 대사로서까지 출세한 박신철과, 농촌운동·정당운동·잡지경영 등에 관심이 많고 박신철의 정상배적인 작태에 대한 우회적인 보복으로 그의 아내 오수진과 밀회를 하기도 한 체제저항적인 비분강개파 황창하 등에 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조리한 체제에 의해서 사람다운 삶의 뒤뜰집 내지 불가능을 드러내려고 한 이 작품의 의도를, 주인공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⑦ 파월국군의 체험을 다룬 박영한(朴榮漢)의 『머나먼 송바강』은 매우 소상하고 정직한 기록이면서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선 뛰어난 문학작품이다. 이 작품으로 하여금 그런 수준의 작품이 되게 한 것은 오직 맑은 정신으로 표피적인 체험을 자세히 기술한 점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단순한 기록이나 보고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문학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더구나 뛰어난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밖의 다른 요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그 요인은 주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이해와 그 상호관계에 대한 통찰에 있어서의 어떤 개성적이고도 보편적인 안목과, 현실세계에 대한 감수성의 신선함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감수성에 관한 한 예를 들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작자의 반응에서 어떤 신선함을 보게 된다. 월남전에서 작자가 실제로 부딪친 세계는 예전 학교시절에 생각했던 아귀가 맞아돌아가는 그런 합리적인 세상,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 알려져 있었듯이 아름다운 야자수에 멋진 낭만에 따뜻한 전우애가 있는 곳이 아니며, 더구나 자기가 바라던, 『활활 타오르며 뜨겁고, 젊고, 발바닥에 땀나는,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쁜』 한번 신나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있는 것이라고는 『태양, 늘어진 야자수, 시애스터라고 불리우는 그 맥빠진 게으른 낮잠, 레이션박스가 널브러져 있고, 물소매가 느리게 지나가며, 털같이하는 짐승의 등어리처럼 살풍경한 들판……거기다 뜻 없이 저질러본 소소한 전투행위』뿐이기에 그 곳은 빨리 떠나고 싶은, 기다림만 강요되는 세계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신선한 감수성은 물론 그 자체로서 문학적 미덕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문학의 가치를 형성하는 한 부분일 뿐 전체는 아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것은 진정한 문학의 가치를 저해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가치는 단순한 감

수성의 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가치는 오히려 개인과 집단,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그 상호관계에 대한 통찰이 있기 때문이다. 개개 인간의 생활과 운명을 중심으로 집단이나 전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는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소설이 회피하려면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박영한은 그것을 이 작품에서 무난히 그리고 훌륭하게 해결하고 있다. 즉 그는 개개 인간이나 부분적인 사실들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그것이 집단이나 더 큰 전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밝혀놓고 있다.

가령 주인공 황일천의 생활을 중심으로 그런 점들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방황과 고민과 좌절로 요약되는 그의 삶은 예컨대 뜨거운 태양은 작렬하는데 부당하게 귀국원(歸國願)은 깨어지고 부모와 고국에 대한 갈증 같은 향수는 쌓여가고 더구나 명석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지닌 애인——뚜이에 대한 파오 때문에 자책과 고민과 환영(幻影)은 깊어가고……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의식은 마침내 분열과 착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황일천을 중심으로, M 16과 기타, 비정과 애정, 뜨거움과 싸늘함, 육체와 지성이 소용들이치는 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함에 따라 월남전의 전반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 가운데 한두 예를 들면 귀국원이 부당하게 거부되는 상황이라든가 전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한국군대의 병리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목적없는 『전쟁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손』이라든가, 『그 무수한 연약한 취들에게 송곳니와 양식을 동시에 공급해 주고, 찢겨나갈 때까지 뼈싸움을 시키는 그들 사육자의 털복숭이 거대한 손』을 통해서 월남전에 있어서의 미국의 부정의한 역할에 대한 증오와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바르고 새로운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

㉘ 지금까지 우리는 최근에 간행된 장편소설들을 중심으로 소설에 있어서의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주로 고찰해 왔다. 그 결과 사회와 개인의 관계란 순응이나 화해라기보다 대립이나 갈등의 경향임을 알았다. 또 그 대립은 개인보다 사회에 더 책임이 많다는, 다시 말해서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나 타락으로 인해서 개인이 거기에 맞서 싸워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우리 나라 작가들이 현실 사회의 병리현상에 민감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

는 단순히 현실에 민감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면을 천착하고 그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소설은 비로소 사회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적 기능을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타락한 사회에서 참다운 가치창조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부조리한 힘에 좌우되는 사회, 시장에 매달린 황금만능의 사회에 있어서 작가는 문제적인 인간(a problematic individual), 즉 사회에 대해서 고차원의 비판적이고 대립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소설의 더욱 큰 업적을 내일에 기대하면서 거듭 밝히는 바이다.

주

1. 宋在英, 「現代小說의 擁護」, 文學과知性, 1978년 여름호 참고
2. 藤武雄, 「最近小說의 傾向과 展望」, 創作과批評, 1978년 봄호 참고
3. 같은 책, pp. 318~9
4. R. 윌리엄스, 「리얼리즘과 現代小說」, 白樂晴譯, 文學과 行動, 太極出版社
5. S. E. Hyman, *The Armed Vision: A Study in the Methods of Modern Literary Criticism* (A Vintage Book), p. 145
6. Lucien Goldmann, *Towards a Sociology of the Novel*, trans., Alan Sheridan (Tavistock Publications), p. ix
7. *Ibid*
8. *Ibid.*, p. 14
9. *Ibid*

□ 필자 : 문학평론가. 延世大 敎養學部 부교수. 저서 『硯外와 興』